

## 보도자료

보도일시 [지면보도] 2020년 2월 6일(목) 조간부터 가능  
[인터넷 기사] 2020년 2월 5일(수) 12:00이후 가능

[연구관련]  
박성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정책평가팀장  
(044-287-6405, parksj@kli.re.kr)  
신현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평가기획팀장  
(044-287-6407, shin@kli.re.kr)

[보도지원]  
김대호 한국노동연구원 홍보전략팀 팀장  
(044-287-6041, helcyon@kli.re.kr)

배포일시 2020년 2월 5일(수) 09:00

## 뿌리산업 다각화정책 추진에 따른 고용효과

- 뿌리산업은 제조 공정기술을 이용해 소재 및 부품을 생산하는 업종으로 최종 제품의 품질, 가격 및 내구성을 결정하는 핵심 기술 영역
  - 그동안 성공적인 산업화로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던 제조업이 최근 경쟁력 약화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
  -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이면에는 뿌리산업의 경쟁력 약화도 한 요인
  - 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그리고 넛크래커(nut cracker)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뿌리산업 고도화가 필요
  - 더구나 최근 4차산업 혁명의 진전으로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변모하고 있는데 생산기반기술인 뿌리기술이 제조혁신 전반에서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뿌리산업이 갖는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 각 국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산업 활성화 정책을 널리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역시 2010년부터 뿌리산업을 3D산업에서 ACE산업으로 고도화하고 매력 있는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
- 2011년 7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시작으로 2012년 12월 ‘제1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2013~2017년)’, 2017년 10월 ‘제2차 뿌리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2018~2022년)’ 등 일련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정책 추진결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줄고 기업당 종사자수가 증가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두었지만 2014년 이후 매출신장세가 둔화되고 인력수급 문제가 지속되는 등 여전히 문제점이 상존

□ 그간 추진된 정책이 뿌리기업의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현재 추진중인 2차 기본계획 중 고용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 있음

□ 뿌리산업 진흥정책의 고용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PSM 분석결과 고용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음<sup>1)</sup>

- 뿌리산업 다각화지원정책이 고용창출에 미친 성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산업부가 제공한 뿌리전문기업 리스트와 고용보험DB, KED, KEIS의 기업재무정보와 연결하여 성향점수 가중회귀분석(PS-WLS)을 실시
- 분석 결과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고용효과는 대체로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있더라도 단기적으로만 효과가 나타났음
- 업력, 매출액규모, 산업을 기준으로 지원사업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고용효과는 대체로 미미했음
- 이러한 결과는 지난 5년동안 지속된 구조조정의 여파로 뿌리전문

1) 상기의 분석 결과는 전체 뿌리기업 중 3.3%(2017년 기준)에 불과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결과임을 밝힘

기업들 역시 고용변동을 경험하였고 주요 다각화 정책이 R&D, 공정개선 등 인프라 구축 및 역량강화사업 중심이어서 단기적으로 고용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여짐

□ 뿌리산업 다각화지원정책이 향후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사전 고용영향평가에서는 고용이 양 및 질적으로 소폭 개선 될 것으로 전망

- 사전 고용영향평가는 뿌리기술전문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가능한 정책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해당 시나리오에 따른 고용의 양 및 질변동 가능성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
- 다각화지원정책 추진에 따른 고용전망을 질문한 결과 향후에는 고용이 다소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 하지만 고용이 증가할 경우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지에 대해서는 4~8% 수준으로 나타남. 현재 정책이 유지되는 시나리오 1 대비 예산규모가 증액되고 현장애로기술지원, 금융 및 수출지원이 보다 강화되는 시나리오 4의 경우 고용증가율이 3.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이 조만간 완료되고 향후 시장여건이 다소 개선된다면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뿌리산업 다각화지원정책추진이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

- 시나리오 1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청년인력 유입 가능성이 4.6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작업환경개선 3.3점, 산업안전 개선 3.4점, 정규직 고용 4.4점, 평균 근로시간 감소 4.1점, 임금격차 완화 3.9점, 이직률 하락 4.0점의 순으로 나타남<sup>2)</sup>

2) 고용의 질은 ① 10%이상 감소, ② 6~10%감소, ③ 1~5%감소, ④ 변화없음, ⑤ 1~5%증

-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고용의 질은 소폭 증가·개선되는 수준에 그칠 것임을 의미

□ 뿌리산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불가피한데 지난 정책에 대한 점검을 통해 향후 정책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 향후 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업종 관계자, 관련분야 전문가, 사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면담 및 FGI를 진행

□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통한 정책추진

- 뿌리산업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뿌리산업 진흥정책이 산업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예산 또한 크지 않아 정책추진의 탄력이 붙지 않는 상황
- 부처 중심의 정책 추진시 다양한 측면의 문제(기술, 인력, 공정거래 등)를 다루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외국 사례처럼 범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 수립·추진 필요

□ 뿌리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 국내 수요기업의 부진으로 해외의 신 수요처 발굴이 중요.
- 하지만 중소기업의 인력, 자금, 정보부족으로 기업차원에서 신시장 개척활동을 진행하기 어려움
- 전국 수준의 수출지원조직을 만들어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협회수준에서는 수출 지원조직을 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가칭)뿌리산업수출지원센터 설립해 우리나라 뿌리기술 홍보, 수출국 시장분석, 인증관련 정보제공, 수출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있음

가, ⑥ 6~10%증가, ⑦ 10%이상 증가의 7점 척도로 측정되었음

## □ 지역뿌리기술센터의 역할강화

- 전국적으로 10개의 뿌리기술센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기업들의 인지도가 높지 않고 장비활용도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해당 센터들이 뿌리산업 경쟁력제고의 산과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함
- 일례로 장비활용도의 경우 센터에 고가 장비만 구축했지 장비를 운용할 수 인력의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아 장비를 사장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운영비에 장비운용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센터가 기업들이 필요하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 정비 필요
- 뿌리산업 역시 R&D가 갖는 중요성이 큰데 우리나라 R&D지원체계의 문제점(높은 R&D성공률, 낮은 사업화율)이 관찰됨
- 대다수 중소기업 R&D정책이 소액의 단기 지원정책인 관계로 기반기술 확보차원의 연구개발에 그치고 있는 상황. 연구개발 단위 예산에 사업화비용을 추가 지급하고 사업화 영역에서 활동하는 학연 전문가들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지급해 R&D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일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     끝.